

## ● 동맥경화란

갓난 아기의 혈관벽은 매끌매끌하고 혈관은 탄력성이 있고 유연하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동맥의 벽은 두터워지고 경화되어 탄력성도 줄어든다. 이상태를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동맥경화는 크게 죽상경화(粥狀硬化), 세동맥경화(細動脈硬化), 중막경화(中膜硬化)의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심장병과 관계가 있는 것은 비교적 두터운 동맥에 발생하는 죽상경화이다.(본 만화에서의 동맥경화는 죽상경화를 말함)

이 죽상경화는 대동맥, 관동맥, 뇌동맥, 신동맥, 지동맥(肢動脈) 등에 나타난다.

## ● 동맥경화 발생의 예

또한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공(內腔)을 흐르는 혈액의 일부는 혈관벽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혈액 중에 지방분이 늘어나면 혈액이 내막을 통과할 때 이 지방분이 내막에 침착하여 결국에는 혈관벽이 두터워진다. 거기에다가 칼슘등의 석회질이 침착하여 동맥벽은 점차 굳어지게 된다고 한다.

## ●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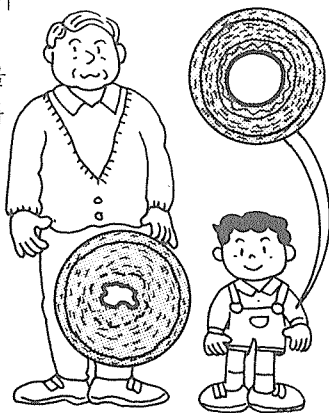
동맥경화가 일어나 혈관의 내공은凹凸 상태로 되어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에 방해가 된다. 때로는 혈전이라고 해서 혈액의 덩어리가 생기는 일도 있다. 혈전이 되면 혈액의 흐름은 점점 나빠진다. 때에 따라서는 내공을 막아서 혈류가 정지되는 일도 있다.

## ● 5세부터 시작되는 동맥경화

누구든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동맥경화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는 40대부터 증상이 현저하게 나타나 허혈성심질환이나 뇌경색 등 여러가지 병을 일으키는데, 20대나 30대에 동맥경화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더우기 한번 경화된 동맥은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동맥경화의 진행을 저지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동맥경화를 예방한다는 것은 결국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다음 호에 계속>